

아침에 본즉 그실이 雪峰山上大池中에 들어간지라
그는 더욱 이상하여 신을 잡어 담기니 擘鯉魚(即龍)
한 마리가 나왔다가 물우물어 갔다 其後黑剛만에
果然 산아히 물나었는데 부르짖으면 편주익을 파보

니 손바닥에 「明天子」라는 새 글자가 있겠다 이사
람이 後에 長成하여 明國太祖가 되었다」
고 한다.

不思議

神과接語한이야기

李古鏡寄

이가차希有한이야기를 내가 雪蘭氏의 재를 잊습
니다 氏가 大正六年春 慶北永川郡銀海寺에 있습
에 大邱桐華寺末寺把溪寺로 부어 오느사담의傳言
을 들은즉 「성팔」이란神이 劉氏란老嫗을隨從하여
把溪寺에住하고있는데 사담과接語하는것이 普通
人과無異하다함으로 冥實地를訪見코자하니 氏는그
處公務에拘碍되어 얼마있다가 夏期放學時를利用
하여갔다함이다 그래서 七月二十二日早朝에 行
裝을收拾해가지고 發程할때에 同伴으로있던 楊
渾虛 崔鐵圭兩氏가 또한同行이되야 二日把溪寺
四十里를當到했드랍니다 寺院拜觀을若干하고 當

寺雪坡和尚方에投宿하고있스면서 來意를말하고神
人과同住하는劉婆의處所를問하여 翌朝에三人이劉
婆의處所를간즉 劉婆가맛춤있는故로 人事를하고
來意를말할때 婆는欣然히말하면서 지금은「성팔」
이가不在하니 黃昏에다시오라고하드랍니다 그때
서 三人은다시 夕飯後에薄暮되기를기다려 劉婆
의게간즉 劉婆가門을열고 迎接하드랍니다 그래서
房에들어가본즉 아모도없고 劉婆一人뿐이燈불도
아주켜지안했드랍니다 三人이劉婆를向하여對坐한
즉 劉婆의身邊으로서 소래있서하는말이 「나는성
팔이오 여러본오시느라고수고했습니다 어찌扶仁

寺할해서 오시는것을보았습니다 져서뜻하여려본
과同行했지마는 여러본은모름되다 그리고手巾을
일으켰지요 그手巾은扶仁寺할길가에서 나무하든
兒孩가주서가졌습니다 라고하드랍니다 그리한소
리를들고 아모리모라하야도 아모身形은보이지안
료 音聲만들리며 더욱놀랄만한한일은三人이昨日을
며에 楊渾虛氏가果然手巾을일흔손잡이있드랍니다 그
러나 三人은조금도부성지안코欣然히人事하고「성
팔」과對話했드랍니다 먼저劉婆의音聲을들었지만이
번「성팔」의音聲은 宛然히男子音聲으로 語調가매
우清雅하야 普通사담과갓고 室外까지도無難히들
리져드랍니다 이때까지劉婆는 아모말씀시안져
있고「성팔」과對話하는대 말하다가흔득하는말이
「여보재살오는가 오물은부었있는가 할에 뒤물이
어門밖으로사대당하는소리요」 아모일도업섯네 하
는音聲이 아즈「성팔」의音聲과다르게용장하야 씩
센듯하드랍니다 그때서 一同이눈을물러 四方으
로보아도 身形은보이지안코 宛然히「성팔」의聲해
안는形迹이있는듯하드랍니다 三人의개인事하라고
「성팔」이가紹介하야 同이各其人事하니 神의對

答이 「나는천왕이라하는데 이近處에있서 把溪寺
境內를守護합니다」 라고한다 그래서 三人은다시
「천왕」과도여러가지談話도하고 二번이나천왕
이「성팔」과對話하는것도應酬하듯했다 이때까지房안
에燈불은켜지안했스나 窓外에는月色이隱隱하야 房
안이그리어졸지아니함으로 二대도안져이야기하다
가 夜深하야告別하고 明夕에다시기를預約하고
宿所에와서 아부리생각하야도 不眠議는정말不思議
드랍니다 翌日밤에다시간즉 이번은「성팔」이가다
른부었으므로여러이야기하고있는대 對話者의音聲
을들은즉 「천왕」의音聲도아니고 宛然히小兒의音
聲과가치 柔弱한女子의音聲이라 三人의생각에또
부스신이찾는가하고 「성팔」외재뜻기를「여보재치
말하는이는누구요」한즉「성팔」의대답이 「이어나히
八歲되는女子인데 二일후에는「대순」이요 將來나와
結婚코자하는故로 나의안해올시다 本來慶北安東
郡一直面(洞名은忘却)에사는 張某의女兒로서 兩
年前에死亡하였는데 每月兩次(初一日)冥府點考에
來往하다가 서로알게되야 나를依託하고있습니다」
하드랍니다 하도異常하야 劉婆의身邊과 房안을살

피모아도 形影은 불수업고 「태순」의 음聲만 들리는 데 서로問答하는 중에 鬼魅中苦樂을問한즉 「第一 飢渴의苦를견디기어렵다고」하미 吉凶禍福을問한 즉 過去事는 말을맛겨하나 未來事는冥府의責罰이 잇다하며 絶對로말을아니하드랍니다 「성팔」의 去因緣을問한즉 自己는慶州枝村崔某의子로서 八歲時에服藥하다가 誤死하였는데 善惡回에業지은 일이업서 冥府의決定을잇지못하고 中陰神이되야 至今까지잇스나 일로부러 千二百日을過하면 人道에受生할時가된다하먼서 日常地獄善緣을念하드 랍니다 이와가치問答하면際에「태순」이가별안間急한語調로「저남은놈은다」하먼서 阇門맛그로되하디 니 限十分後에「천왕」이불어오먼서 웅장한語調로 「성팔」외제人事하고 卞雪圃氏等의제도人事하드 랍니다 서로人事하고 數時間談話하다가 시장해서 發癡飢를맛스면맛겠다고 議論이되야 或은酒店으 르가자거나 或은그만두자거나하먼차에 「천왕」의 말이 飲食을사다디자하기로 「천왕」을勸하야 수 고될지라도사다말라고請을한즉「천왕」의말이「오늘 은擘湖江神이 어대올가고잇스나 其外神은은잇미래

佛敎第三十八號

도 拘縛를잇었다」하먼서 어대가서사오랴고못드 랍니다 그대「천왕」의承諾을받은後에 大邱南門外派 出所알某家에가서 사오랴하먼서 一行中崔氏가 半圓銀錢二枚를내어노르니 「천왕」의말이紙貨로바꾸 어달나고하드랍니다 그때서紙貨一圓과 劉婆의계 酒釀子와木鉢盤을빌어준즉 物件이忽然보이지안고 「천왕」의音聲도업더니 略三十分後에 倏유하는소 리가나먼서 酒着가압혀노이드랍니다 그래서三人 이分飲하고 「천왕」과「성팔」을준즉 質의잇다고人 事는하나 酒着는업서지지안고 그대도잇드랍니다 半日은酒着는翌日에먹이보야도 飲食인것이分朋하 고 其後大邱장면길에 南門外派出所알酒家를尋訪 하야 某日夜에酒釀子、木鉢盤을가져고 술사려온 이가업거나한즉 果然잇섯스나 사담인즉記憶과知 면도업는老人이더라고하드랍니다 술먹은後別하 고찾다가 翌日夕에뜨가서늘면서 「천왕」을보고飲 食사오마하니 오늘은擘湖江神이잇스나 갈수가업 다고拒絶하며 身形을외어달나한즉 이도冥府의責 罰이잇스니의일수업다고拒絶하드랍니다 이러자「천 왕」이가고난후에 「태순」이가성팔「이와가치안저

회회나나우서가먼서 노드랍니다 그럭저럭一週日 동안이나잇스면서 第四次는낮에가서 劉婆의계여 리가지를부른즉 劉婆의말에「천왕」이日常「태순」의 계책을두고 조롱도하며 或때리기도하먼「태순」은 을기도하며 도망도하나안일성팔「이가잇스면그 리도못하고 「태순」이는 玉笛를잡부는대 「천왕」 이안일오면 玉笛를부지안는다고하드랍니다 玉笛 에對하야는他人의말을클으면 이악이가한이잇스나 氏는이맛겨못풀었다하며 其後大正十二年春에 把 深寺雪坡和尚을 大邱城中에서相逢하야 劉婆及「성 팔」等의 有無를問한즉 「성팔」은幾年前에 人道에 受生해가고 「천왕」이「태순」을안해로占領해가지고 열마동안同居하고있다가 所한近者에 보다人道에 受生해가고 劉婆는昨年秋에 漆谷郡天柱寺等地로 移去하였다고 雪坡和尚이말하드랍니다 「성팔」의계對한이악이는 여러사람의계한히들었 섯다 비단한두번이아니다 비록자조들었스나 모 다尋常히들었습디고 그러고 보다傳言者의말엔 이기로 記錄하라고도아니하였섯다 그러나 이번 卞雪圃氏는 實地를 親見親聞한바이기로 나는그

佛敎第三十八號

것을잇는다 氏의말한中에 「태순」이의玉笛에對하 야는 나는他人으로부러 이와가치말을들었다 玉 笛의來歷을말하면 帝釋宮에있던것을 「성팔」이가 그제帝釋宮에잇습씨는 나히어린小兒였섯는데 其 玉笛를竊取해가지고 人間에逃亡하야 습이다잇섯 는대 「천왕」은帝釋宮中差使로서 天帝의命을맛고 「성팔」을搜索하러 人間에내려왔다가「태순」의계情 을우엇섯스나「성팔」이잇습씨는 「태순」을無限히의 례게만골다가 那終에는 안해를상앗다고하는말을 分明히들었다 모든말을綜合해보면 玉笛도잇섯고 「태순」이도잇섯고 「천왕」도잇섯고 「성팔」이도잇 섯는것은 分明한事實입니다

鬼神世八卷七虛無五溪한語說로뜻지나니하미 凡곳이靈體 靈體靈體로남니다마는 其實은그원인이아닙니다 生界의우리를 指目하야人이라함지미 그對象으로死界의二것을指目하야鬼마함 지미 人生의계도善惡이잇습지미 鬼神이도善惡이잇습지미 다 是는陰陽이다로고顯明이다로다는것보단 鬼神은顯效이잇기 에유족 우리와같이恒常보이지안는것입니다 佛敎에서鬼靈을 稱습하야 靈敎에서鬼神을稱습하야잇기從然이잇습지가 是는 우리와日用動靜이鬼神과接觸이정후으로鬼神之說이上古부터 有無이紛紜하였습니다 近來의科學者가鬼神이存在否를論할

